

제3차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10월 16일~17일, 전북 부안 일대에서 열려

도 시민들에게 어촌 어항 어장의 각종 체험 거리를 소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그세 번째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동안 전북 부안 일대 어촌 어항 어장에서 실시되었다.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도시민 61명이 참가, 부안군 도청리어촌계에서 머무르며 부안일대 어촌 어항 어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주요 일정을 보면 16일 첫째날 도청리어촌계 주변 민박과 펜션에 여장을 풀고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절경인 체석강, 적벽강, 수성당 등지를 둘러보았다. 또 최근 부안 일대의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세트장을 관람



하고 격포항에서 낙조를 바라보며 식사를 했다.

밤에는 도청리어촌계 앞 상록해수욕장에서 캠프파이어를 걸드린 조개 및 전어 구이 체험을 했다.

둘째 날은 도청리어촌계 갯벌 체험어장에서 조개잡이 체험을 하고 내소사 관람에 이어 곰소항 젓갈 축제에 참가, 지역 특산

수산물 구매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줄포저류지에 들러 20만평의 갈대숲을 산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배 부안군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친절한 안내를 해주었고 박종운 도청어촌계장 등 어업인들이 환영해 주었다.

특히 조개구이 체험 때에는 지역 특산물인 가을 전어와 지역 특산음료 등을 협찬, 참가자 일행을 환대했다.

이번 행사는 1,2회 때와는 달리 어촌계 내에서 체류하며 어촌 어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제4회 행사는 '상록보육원' 원생 60명을 초청, 인천 강화에서 실시된다.



▲ 갯벌 조개잡이 체험을 하며 신기해 하는 어린이들



▲ 조개구이 체험



▲ 줄포 저류지 갈대밭

어항협회, 대청도 중국어선 통발 수거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연평도 꽃게 어장 정화사업에 이어 대청도 주변수역에 중국어선들이 설치한 불법 통발을 수거, 서해 5도 어업인들을 지원했다

한국어항협회는 대청도 동방어장 외측

특정금지 구역 수역에 중국어선이 들어와 불법으로 투망한 5만여개의 통발어구를 수거하는 사업을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시행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족 고갈 등 우리 어장의 피해

를 막기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 통발어구를 수거하기로 하고 한국어항협회에 위임, 해군·해경·인천시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불법 통발 수거작업을 실시했다.

수거된 불법 통발은 일정기간 전시를 거치고 향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정부에 강력 항의 및 근절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